

## [ 사회 ]

# 市·郡 명문고 육성사업 빛났다

## ■ 학교별 대학 진학률 공개

### 강진고·부영여고 등 좋은 성적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장학재단 설립 등을 통해 추진중인 지역 우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빛을 발하고 있다.

4일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개된 초·중등학교 공시정보에 따르면 전남 22개 자치단체 중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가동중인 시·군 고교의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이 지역 우수 고교로 육성 중인 강진고는 2008학년도 대학 진학률이 97.2%에 이를 정도로 큰 성과를 냈다. 이 중 4년제 대학 진학률도 도시지역 우수 고교에 뒤지지 않는 75.4%를 기록했다.

지난 2005년 강진군민 장학재단은

설립해 1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한 강진군은 관내 우수 고교생들에게 해외 영어연수와 장학금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지난 2004년부터 116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조성해 운영중인 여수군 역시 부영여고의 대학 진학률이 94.4%(4년제 대학 진학률 77.4%)에 이르고, 여수여고와 중앙여고, 화양고 등도 90%대를 모두 넘어섰다.

지난 2008년 설립해 1년 만에 20억 원이 넘는 장학기금을 조성한 영암군은 지역 우수 인재 육성에 올인한 덕분에 영암고와 영암여고의 대학 진학률이 각각 90.1%(4년제 대학 진학률 76.5%), 91.6%(67.9%)로 고공 행진을 했다.

지역 인재 육성을 '군정 목표'로 정해놓고 있는 해남군도 대학 진학률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 해남군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75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 매년 명문고 육성에 3억5천만원과 성적우수 대학생 장학금 등에 13억원을 지원해왔는데, 이번 정보공시에서 해남고는 도시지역 우수 고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90%(74.3%)의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서울대 합격자 수=명문고' 이젠 옛말

#### 광주·전남 일반계고 순위 변동 심해

'서울대 합격자수와 4년제 대학 진학률의 상관 관계는?'

올해 서울대 합격자 수가 많은 고교들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대체로 높았지만, 서울대 학생 수와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과 학교알리미 사이트 등에 따르면 2008학년도 4년제 대학 진학률에 서 100%를 기록한 전남과학고는

명의 학생들을 배출, 일반계고 광주·전남 서울대 학생 1위를 차지한 고려고는 이번 정보 공시에서도 83.7%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을 기록해 5위에 올랐다.

또 광주지역 고교 중 4년제 대학 진학률(87.3%) 2위에 오른 광덕고도 올해 5명의 서울대생을 배출해 5위에 오른바 있다.

6명의 서울대 학생을 낸 금호고는 82.2%의 대학 진학률을 보여 8위에 올랐으며, 각각 4명과 3명의 서울대생을 배출한 설월여고와 광주여고도 80%가 넘는 높은 진학률

을 보였다.

반면 광주에서 8명의 서울대 학생들을 내며 3위에 랭크된 대광여고는 이번 대학 진학률에선 78%로, 10위 밖으로 밀려났다.

동성고(6명)와 문성고(6명) 등도 서울대 배출 학생 순위에선 상위권에 올랐지만, 4년제 대학 진학률에선 70%대를 간신히 턱걸이했다.

특히 5명의 서울대 학생들을 배출해 광주에선 5위를 기록했던 전대사대부고는 4년제 대학 진학률이 67.3%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외는 반대로, 대동고의 경우 서울대 학생들은 단 1명에 불과했지만 4년제 대학 진학률(86.8%)에선 광주지역 3위에 올랐고, 동신고(1명)와 송원고(2명)도 각각 82.7%와 82.2%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오늘 환경의 날

사진전·생태 탐방 등

광주·전남 행사 다채

제 14회 환경의 날을 맞아 광주·전남지역에서 기념식과 기후변화 사진 전을 비롯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린다.

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환경의 날인 5일 오전 광주시 상공회 의소에서 환경단체 회원과 관련 업체, 공무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서는 환경부장관 표창에 송경실씨 등 13명, 영산강유역환경청 장 표창에 광주 풍용초등학교 최수진(6년)양 등 12명에 대한 유공자 표창도 이뤄질 예정이다.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련된 사진 전시회도 함께 마련된다.

같은 날 오후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자연보호와 환경보전이라는 주제로 초·중·고교생의 글짓기 대회가 치러진다. (사)자연보호중앙연맹 광주광역시협의회가 주최하고 광주시가 주관하는 글짓기 대회는 운문과 산문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광주시 북구는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북구 청풍쉼터 공원 일대에서 '지구사랑 자연사랑'을 주제로 어린이 사생대회를 연다. 북구는 대회 글짓기 부문과 그림 그리기 부문에서 각각 6명을 선발해 시상할 예정이며, 참가 희망자는 12일 까지 북구청 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

장성군도 5일 그린장성21협의회와 황룡강 네트워크 공동주관으로 황룡강 일대에서 자전거 타기, 환경 사진 전을 여는 한편 황룡강 자연생태탐방 및 정화활동을 별도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오늘 날씨

해물 05시 18분

해진 19시 44분

달밤 03시 05분

달점 03시 05분

온천 17시 38분

김릉 17시 38분

울진도 17시 38분

부산 17시 38분

제주도 17시 38분